

‘세영플리머’ 정학규·‘지케이’ 김귀영 대표

### 중기청 신지식인상

(주)세영플리머 정학규 대표와 (주)지케이 김귀영 대표가 중소기업청이 주는 신지식인상을 받았다.

또 지지오케이 김의숙 대표, (주)인아렉스 백희종 대표, (주)동양산업 이창복 대표 등 3명이 광주·지방중소기업청 표창장을 받았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은 29일 중무식을 갖고 창의적 사고와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들 업체를 선정했다.

개인상으로는 광주·전남중기청 기술지원과 정현호씨가 중기특별위원장 표창을, 지원총괄과 박한근·김마성씨가 중기청장 표창을, 기술지원과 심상진씨와 지원총괄과 김장호씨가 광주·전남중기청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중기중앙회 시·도 사업실적 평가

### 광주·전남지회 최우수 선정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강영태)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13개 시·도 지회의 2006년도 사업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지회로 선정돼 중앙회장 표창과 상금을 받았다.

광주·전남지회는 광주시와 협력사업(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 운영, 외국인산업연수생 위로행사 개최)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중소기업 경영여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공제사업기금 지원, 외국인산업연수생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등 각 부문에 걸쳐 혁신적인 업무자세로 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고객에 다가가는 경영 펼칠 것”

### 현대백화점 신임 황해연 광주점장

“갈수록 다양해져 가는 구매자들의 소비패턴과 욕구를 파악해 백화점이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고객화 백화점’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달 1일자로 현대백화점 광주점장에 취임하는 신임 황해연점장(46)은 유통 격전지로 유명한 광주점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황점장은 백화점 ‘빅3’ 가운데 현대가 광주에선 밀리고 있지만 현대만의 특색인 품격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고품격 쇼핑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출신으로 휘문고와 한국항공대 항공문화학과를 졸업한 황점장은 지난 1988년 입사, 출근 잡화가용팀과 상품본부 잡화팀 바이어를 역임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세밀 양동 재래시장 가보니

## “버스 준공영제가 뭔지...” 찾던 손님들도 발길 끊겨

### 노선 줄고 2~3번 환승 불편... 고객 50% 줄어 ‘썰렁’

“이제 장사 좀 되려나 했는데 시내버스 준공영제인가 봐서 왜 이렇게 찾던 손님 발길마저 끊겼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함께 폭설이 내린 지난 28일 오후 광주 양동시장에서 만난 상인 김모(여·54)는 한숨부터 지었다. 이날 다른 시장 상인 300여명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항의집회를 위해 광주시청에 몰려간터라 시장은 평소보다 더 썰렁했다.

30여년째 이곳에서 건어물 가게를 한다는 김씨는 “10여년전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밀려 설자리가 없던 재래시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상품권 유통과 현대화사업 등으로 그나마 살아나려는 기미를 보였는데...”라며 아쉬워 했다.

광주지역 재래시장이 뜻하지 않는 복병을 만나 또 다시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상품권 유통과 현대화사업 등 재래시장 활성화 조치가 하나 돌볼 효과를 내면서 올 연말 10여년만에 처음으로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였으나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직격탄

을 맞은 것이다.

양동시장의 경우 준공영제 실시로 18개이던 시내버스 노선이 10개로 줄어들면서 1주일만에 고객이 이전보다 3분의 1가량 줄었다. 대신 양동시장역 지하철 이용객은 30% 가량 늘었지만 이것이 양동시장 매출감소를 막는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양동시장은 그레도 사정이 나은 편이다. 복개상가를 중심으로 4개 시장으로 구성된 양동시장은 시설 현대화사업과 지난 8월부터 광주 시내 13개 재래시장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상품권이 현재까지 8억원 가량 팔리면서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이다.

광주 시내 21개 재래시장중 상품권 유통이 되지 않는 8개 시장의 경우 연말경기라는 것이 아예 없는데다 준공영제 여파까지 겹쳐 장사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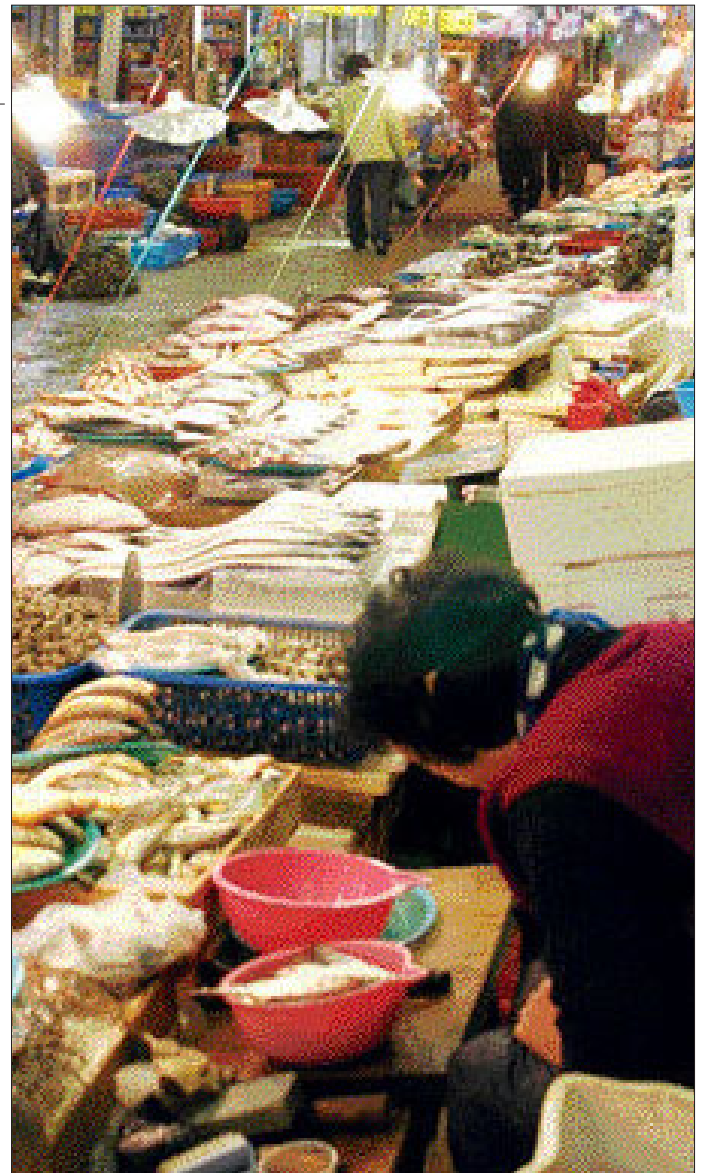
소규모인 중흥시장의 경우 시장내 30여 점

포의 매출은 갈수록 줄어 3년전의 50%에도 못 미치고 담양 등지에서 올라오던 길거리 좌판상들도 준공영제 실시이후 메이상 오른 버스요금과 환승의 불편때문에 거의 자취를 감췄다.

중흥시장 상인 박철규씨(55)는 “좌판상 대부분이 시골에서 간단한 먹거리를 가져와 파는 할머니들인데 20여명이던 할머니가운데 요즘은 5~6명밖에 볼수 없다”고 전했다.

정대규 광주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장은 “재래시장을 찾는 손님의 대다수가 50~60대인데 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버스 노선 수가 줄고 2~3차례 집을 들고 환승해야 하는 불편때문에 심한 재래시장은 이전보다 손님이 절반가량 줄었다”며 “매일 시장 상인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양동시장내 한 수산물 가게 주인이 29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여파 등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자 기다림에 지쳐 줄고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우리銀도 0.2%P 인상

### 내달 2일부터 서민부담 가중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상행렬에 동참했다.

최근 주택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마저 주택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키로 함에 따라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0.7~2.0%에서 0.9~2.2%로 높아진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5.55~6.85%로 고시됐으나 다음주에는 CD 금리가 오르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5.75~7.05%로 상승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8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0.2%포인트를 폐지하고 근거당금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할 경우와 대출기간 10년 초과 약정할 경우 각 0.1%포인트의 금리가 가산되도록 했기 때문에 두달새 가산금리가 최대 0.4%포인트나 오른 셈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이 잇따라 가산금리를 올리며 대출 수요가 우리은행에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기로 했다”며 “대손충당금 인상에 따른 부담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CD금리가 한국은행의 예금 지급준비율 인상과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 영향으로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시중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행진이 대출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가계대출 559조원 위험관리 주의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가계신용에 대해 소비자·은행 등 경제주체들이 위험관리에 나설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은행연구소는 29일 ‘2007년 은행경영 10대 이슈’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을 동시에 안고 있는 가구,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단기대출을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가구 등은 위험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주요국가에 비해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기에 가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558조8천억원으로 1997년 9월에 비해 2.8배, 2002년 카드사태 직전보다 40%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 중이다. 개인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4배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 ‘전남 농협인상’ 받은 김 보 영 화순군지부장 조합 합병수익 13억 조합원에 돌려줘

“화순지역내 4개 조합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產地所) 운동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9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인 김보영(54) 화순군지부장은 “향후 최대 현안사업인 쌀문제를 해결하는 등 농가소득 제고에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지부의 수익성 개선사업이 지난해 8월 부임한 김 지부장에 의해 2005년 쌀판매 전국 1위의 실적을 거뒀으며, 수신 2천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

김 지부장은 “이와 함께 올 5월 전국 최초로 847명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단체공제 8천100만원을 가입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활짝 웃었다.

강진출신으로 광주대와 농협대를 나온 김 지부장에겐 부상으로 1남 1녀를 낳고, 수년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던 경제·신용사업을 최근 2년 연속 전국 1위까지 끌어올리는 수완을



발휘하기도 했다.

“4개 조합 합병결과 20억 6천 100만원의 경영개선효과, 합병에 따른 연간수익금 13억원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김 지부장은 “이와 함께 올 5월 전국 최초로 847명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단체공제 8천100만원을 가입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활짝 웃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 course or service. Headline: '영역별 노후필기식 특수비법으로 손4부터 손3파장까지 12개월 완성! 수확을 못하는 것은 100% 선생님 책임!!' (Complete 12 months from hand 4 to hand 3 with special techniques for regional elderly, 100% teacher's responsibility for no harvest!). Includes a photo of a man and contact numbers like 376-3683 and 574-4422.

Advertisement for Cell Banking. Headline: 'Cell Banking' (Cell Banking). Text: '셀뱅킹은 건강관에 자신의 세포를 보관해준다' (Cell banking stores your own cells for health management). Includes a photo of a pers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any.